

8월 수출 전년 동월대비 감소

전북수출 5억 342만 달러 그쳐... 정밀화학 자동차 감소폭에 영향

전북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전라북도의 수출은 5억 342만 달러로 전년 동월 5억 1,000만 달러 대비 1.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전북지역 10대 수출품목 중 상위 1위였던 자동차의 수출 증가율이 8월에도 여전히 두자릿수의 감소세로 부진했다.

또 정밀화학 원료는 수출관할지 변경 사업부 매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3.8%(6,2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8월 전북지역 2.3위 수출대상국인 중국(전년동월대비 -33.0%), 베트남(전년동월대비 -14.4%) 수출이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 수출 감소 원인은 정밀화학, 베트남 수출 감소는 자동차(-28.5%),

농약 및 의약품(-59.0%), 자동차 부품(-57.1%)의 감소폭이 컸다. 또 대만 수출 역시 반도체(-42.1%), 정밀화학 원료(-91.0%)의 부진이 전체 수출안화에 영향을 끼쳤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북지역은 8월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 중 1.25%의 비중을 차지, 17개 광역자치체 중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군산시는 전년동월 대비 -33.9%로 여전히 부진했다. 반면에 2016년 8월 전북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2.3% 증가한 3억 2,088만 달러를 기록했다.

성질별로는 원자재 수입이 0.8%로 올 들어 처음 증가했다. 또 소비자 수입도 22.0%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농약 및 의약품 55.7%, 유리제품 44.3%, 철강판 780.0% 등 크게 증가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증가도 두드러졌다. 기타 정밀화학제품의 경우 3.758%에 해당하는 만큼 증가율이 높았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올해 수출이 1~7월 누계 기준 ?24.3%를 기록한 정도로 악화일로였다. 그러나 8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3%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고무적이다. 또 아직 사드에 의한 영향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초 발생한 한진해운 사태 및 북한 핵실험에 따른 파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어 안심을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무역협회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전북 지역 기업들이 신속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로 수집 및 관계기관 건의 등을 통해 최선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타항공, 10월 24일부터 사이판 노선 신규 취항

내달 3일까지 특가 항공권 판매

이스타항공이 10월 24일부터 사이판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인천-사이판 노선은 주 7회 운항하며 이번 신규취항으로 총 22곳의 국제선 정기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인천-사이판 노선 판매 오픈을 기념해 지난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11일간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탑승기간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의 항공권이며, 최저 74,900원(편도총액운임)부터 제공된다.

더불어 중국노선 청주발 하얼빈, 대련 노선의 동계스케줄도 함께 오픈 한다. 9월 30일까지 오픈 특가 이벤트를 통해 편도총액운임 기준으로 청주-하얼빈 7만 2,000원~, 청주-대련 6만 2,000원부터 이용 가능하며 탑승기간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이어 다섯 번째 신규취항지인 사이판을 취항하는 등 꾸준한 노선 확장을 통해 고객들의 여행 선택권을 넓혀가고 있다"라며 "사이판 노선과 더불어 하얼빈과 대련 중국노선 오픈 특가를 이용하면 더욱 실속 있는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istair.com)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을 환절기, 피부노화 예방에 '콜라겐' 주목하라

노폐물 제거·보습에 특효

추석 이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부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한 자외선과 일교차 등으로 피부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을에는 콜라겐에 주목하자.

지난 23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한 종류로, 피부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진피층의 80%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 탄력과 보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내의 콜라겐은 섬유나 막 등 구조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콜라겐은 몸 속에서 끊임없이 분해되고 합성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분해보다 합성이 늦어져 콜라겐량이 부족해지기 쉽다.

콜라겐은 2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해 40대를 넘어서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라겐은 진피에서 활발하게 짜인 그물구조를 만들며, 이는 피부의 탄력과 신축성을 높여준다. 콜라겐은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작용하게 하며 신진대사를 도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가기 등도 예방한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줄고, 이 때문에 주름이 생기게 된다. 피부 노화의 주범이 콜라겐 부족인 셈이다. 하지만 몸 속의 콜라겐을 보충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매우 크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피부장벽을 뚫고 들어 갈 수 없다. 이 때문에 고가의 콜라겐 화장품을 비싼다고 해도 콜라겐 성분이 피부 속으로 침투해 주름개선과 탄력증진

등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다. 다만 콜라겐 성분이 피부 표면에 머무르면서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보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라겐을 먹어서 보충하면 어떻게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닭발, 족발, 생선의 뼈와 껍질 등이 있다. 하지만 콜라겐을 음식으로 섭취하면 대부분 위산과 효소에 의해 파괴되고 소장에서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돼 단백질이든 식품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분해된 아미노산이 몸 속에서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될 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아미노산이 체내에서 콜라겐으로 합성되려면 비타민C나 철분 등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딸기, 카이 등이 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박중구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이 롯데경제재단을 대표해 해당 대학생들에게 꽃다발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장학금 전달

도내 대학생 14명에 4500만원 지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5명, 전주대학교 5명, 원광대학교 4명, 총 14명의 장학생에게 2학기 등록금 전액 4,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박중구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이 롯데경제재단을 대표해 꽃다발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고,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중구 전주점장은 "롯데 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에 설립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예체능 및 기술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해 학비, 기숙사비, 식비, 물품비 등 개인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역내 인재육성과 지역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국 관광객들 소비패턴 '변화'

씩씩이에서 취향소비로

최근 중국 관광객 중 패키지가 아닌 개별여행을 즐기는 '씩씩이'가 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다.

최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화장품을 씹씩이 해가던 중국 관광객들이 최근들어 헬스케어, 건강식품, 잡화 등 '취향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올리브영이 중추절 기간인 12~18일 관광상품 매출을 집계한 결과 이들 상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올해 중추절 프로모션에서는 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신장이 두드러졌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개별여행객 '씩씩이'의 '취향소비'가 늘어 쇼핑품목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추절 프로모션 기간 내 매출 1

위에서 5위 제품은 모두 헬스케어, 헤어케어, 이너뷰티 등이 차지하며, 지난해 중추절 기간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많은 중국인들 사이에 간편하게 자제를 교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입소문을 탄 '선과 밀리 바른자세벨트'가 지난해 중추절 기간에 비해 무려 90배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눈의 피로와 다리 붓기 관리를 도와주는 릴렉스 제품들도 많이 찾는 추세다.

CJ제일제당의 히나비 역시 전년 대비 매출이 9배 성장했다. 이 밖에 헤어케어 제품도 전년 대비 70% 상승했다.

한방 삼푸는 물론 헤어 에센스, 염색약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 한국 여성 연예인의 앞머리 연출법이 중국에서 유행하면서 유니스 고데기, 스타플 등 초소형, 초경량 디자인의 헤어 가전 제품도 인기를 끌었다.

중추절 프로모션 기간 내 매출 1

농협, 김영란법 대비 소포장 선물세트 판매

농협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저비용·소포장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내었다.

지난 23일 농협은 "선물세트의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포장을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 우리농산물 선물세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선물 비용은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에 농협은 기존 규격에서 개수를 2~4개를 줄여 도매공급가 4만원대의 상품을 제작하고 포장 재료를 간소화해 자체비용을 절감한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포장 혼합 선물세트, 4~5만원대의 계절과일을 담은 신선한 제철과일 선물세트, 젊은 고객층의 선호를 반영한 우리농축산물 모음세트 등을 연중 상시 판매할 계획이다.

명절 판매 의존도가 높은 우리농산물 선물세트를 연중 제작 및 공급함으로써 농산물 소비확대가 이뤄져 농업인의 실익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법 기준을 준수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소비촉진에 앞장 서겠다"며 "농업인에게는 웃음을, 소비자에게는 감동을 드리는 농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오뚜기·팔도 '부대찌개라면' 격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되는 가운데 라면업계가 부대찌개라면 경쟁에 돌입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라면업계 1.2위 농심과 오뚜기의 부대찌개라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팔도도 관련 제품을 내놓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농심에 따르면 지난 8월월 출시된 보글보글부대찌개라면은 출시 50일만에 100억원어치 팔려나갔다.

출시 첫 4주만에 매출 50억원을 기록했던 이 제품은 이후 3주만에 50억원의 매출을 더 올리며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농심라면 중 신라면에 이어 판매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농심은 이 제품의 월 매출목표를 100억원으로 높이고, 영업과 마케팅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뚜기 역시 지난달 18일 부대찌개라면을 출시했다. 사골육수로 맛을 냈지만 농심과 달리 분말스프, 건더기스프 외에 별첨 액상스프를 추가했다.

오뚜기는 밤을 갈아먹으면 더 맛있다는 점을 방지 조리법에 명기 국물 맛을 강조하고 있다. 팔도는 지난달 29일 부대찌개라면을 출시했다.